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박 태 수 *

〈 목 차 〉

I. 서 론	V. 마무리
II. 지역사회교육의 현실과 과제	참고 문헌
III.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	Abstract
IV. 지역복지의 내용	
V.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I. 서 론

최근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웰빙(well being)이 우리의 삶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도 보기 좋게 잘 가꾸자(well looking)', '자동차 공간을 편리하고 산뜻하게 각종 편의 장비를 갖추자(well equipped car)'로 나타나고 심지어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well dying)'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웰빙이며, 이 자체가 곧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웰빙은 사전적으로 '행복, 안녕, 복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보다 여유있고 풍요로워 지고자 하는 희망과 가치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현상은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고 이웃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웰빙을 추구하고 있어서 웰빙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웰빙, 즉 자신은 물론 이웃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보고 진정한 행복을 함께 찾고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운동과 생활양식이다. 웰빙이란 외형이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 내면세계가 너그러워져야 하고 행동자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러한 웰빙의 추구는 우리가 속해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건강할 때 가능하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역사회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간에 따뜻한 정이 담겨져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 같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공간인 산과 바다 직장, 공원, 도로 등에서 언어나 행동, 사고방식, 감정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정, 학교와 함께 사회교육의 중요한 학습공간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사회는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대 중양 및 세계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화가 초래할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할 경우 제주인들의 미래 삶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민호(2003)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국가 수준의 사업이면서 동시에 제주 지역 개발 전략이기도 하므로, 제주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 복지를 결합시킨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보면, 교육소외와 교육부적응, 그리고 교육여건불평등 해소, 친복지적 교육환경조성, 복지정책추진체계의 구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계획의 개별사업들을 보면, 특수교육, 유치원종일제, 저소득층자녀 수업료 지원, 단위학교 상담전문가 배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방과 후 학교, e-러닝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복지는 교육에 국민 최저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이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학습을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윤철수, 2002).

복지사회가 지향하는 웰빙, 제주지역의 과제인 국제자유도시 건설, 교육인적자원부의 복지교육 정책 등 일련의 국가사회의 급박한 흐름 속에 제주지역사회교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좋은 사회만들기 운동을 복지개념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복지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본 주제에서는 지역사회교육의 현실과 과제, 지역복지의 새로운 변화, 지역복지의 내용,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지역사회교육의 현실과 과제

2003년도 전국지역교육협의회는 지역교육협의회의 사업을 지역사회학교 육성사업,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교육을 위한 운영지도자 교육은 교육시간이 갈수록 단축되어 전문성과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모교육보급과 프로그램지원은 지역사회학교에 학부모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정규 프로그램은 실시기간과 참가비 부담으로 개설하기 어려웠고, 학부모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주로 학교도서관 명예교사 양성과 예절명예교사 양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보면, 지역협의회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전국협의회의 애로점을 보면,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이념에 대한 인식부족, 부모교육 참가비과다, 프로그램지도자과정 개설이 안됨, 직원 및 실무자 인건비 부족, 지역학교 교장의 소극적 태도, 회원들의 자원봉사정신 부족, 지자체 연계사업 불가,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지방협의회들은 중앙협의회에 부모교육활성화방안, 독서능력진단지 활용방안, 지역사회운영에 필요한 지도력 확보방안, 지역사회학교 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효과적인 지역사회학교 가입권유 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전국협의회들의 평가와는 달리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평가에서 미흡한 점들을 거의 다루고 있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지역사회학교 돕기를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지도자 양성교육,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자원 확보, 대외 및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등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교육활동을 복지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변화·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난 10여 년간 개최된 심포지움의 주제를 보면, 부모교육 및 역할 관련 2회, 청소년 정신건강 및 인성교육 관련 2회,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관련 3회, 독서교육 관련 2회, 국제자유도시와 시민의식 관련 1회 등의 주제로 10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주제는 그 시대 지역사회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의 활동내용도 소위, 지역복지 또는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사회교육 자체가 복지교육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을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활동의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며 실시해오고 있다.

하나는 교육복지를 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교육은 이제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복지다.” 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교육을 받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를 중요한 문제로 삼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정의에서 복지는 교육의 상위개념이며, 교육을 통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며, 논리적으로는 교육의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학교사회복지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있음을 볼 때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만길 등(2000)이 제시한 것으로 교육복지는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라는 정의이다. 이 정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 활동을 교육복지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교육복지에는 교육활동은 포함되지 않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교급식비, 학비지원 등 제반 조건들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 혹은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복지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혜영 외, 2002). 아울러 이러한 정의는 학교사회복지와 유사한 정의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의 목적달성을 중요시하는 학교사회복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정의가 제기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혜영 등(2002)은 교육복지의 개념을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반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교육을 복지의 수단으로 보는 전자의 문제와 교육과 교육 복지를 별개의 차원으로 간주하는 후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영·유아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하는 건강, 의료 등의 복지지원과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 일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저소득층을 주요한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활동을 주된 지원활동 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학교사회복지의 정의와 매우 흡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성민선의 2004).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도에 학교사회사업 연구시범학교를 2년간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 2년에 걸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도시 저소득 지역 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6개 지역 31개 초·중등학교 등 모두 43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고, 이들 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그들이 학교 내의 교육복지사업을 전담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인원 채용 결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불리는, 학교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80% 이상이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그간 사회복지관 또는 학교 등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해 왔던 사회복지관 또는 학교를 거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며, 또한 이들의 배치에 기준이 되는 임금, 근무형태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학교사회사업 기획사

업의 기준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성민선의 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영 유아 및 학생(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실천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형성된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연계망을 통하여 교육·복지·문화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교육기회의 배분적 평등을 이루며,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한국적 학교사회복지의 모델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본다(윤철수 2002).

이제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지역사회교육이 복지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역사회교육의 새로운 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내에서의 가족공동체의 형성이다(신용주, 2003). 지역사회교육은 가족공동체라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의 충족이나 관계의 정립, 또는 갈등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 가족해체의 방지가 최선의 대책이지만 가족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가족해체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적인 추세일 것이다. 즉 개인의 삶의 유지와 생존 그리고 사회의 존속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가정이 해체위기에 놓였을 때 가족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기제로서 가족교육과 청소년교육은 지역사회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며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기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를 완화시켜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가족복지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혁신적인 가족 및 청소년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

지역사회복지란 개인의 생활과제를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여겨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복지는 출발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의 사회자원을 활용한다. '자신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여겨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므로 그 과제에 공감하는 주민이나 전문가의 참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천하게 된다(박태영, 2003).

여기서는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의 과제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와 복지교육의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1.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communitry welfare)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오정수·류진석, 2004).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강화, 조직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서비스가 있다. 본 주제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지역복지’라는 축소용어로 사용하여 지역사회교육과 관련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역복지는 지역사회집단, 조직과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실천 활동으로 지역사회주민의 회생 및 심리사회적 손상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상담, 임상치료 등 미시적인 개입(micro-oriented intervention)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주민의 삶과 생활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연결, 관리는 물론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환경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조직가, 계획가, 사회행동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복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상황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21세기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오정수와 류진석(2004)은 새로운 도전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가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cyber) 공간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네트워크공동체, 컴퓨터 네트워크공동체, 사이버 동호인 모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초로 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는 지역복지실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복지관을 통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전산망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개입과 실천기술, 실천윤리 등의 개발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복지실천의 이념이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두 흐름은 제도화된 사회복지활동과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실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제도권의 지역복지 활동은 외원기관, 새마을 운동,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반면 진보적인 운동으로서의 복지활동은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NGO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실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지역사회조직의 방법을 넘어 새로운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목표로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새로운 실천의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통합적 지역복지서비스의 실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자원동원의 전략의 중요성 등도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2. 복지교육

복지교육이란 기본적 인권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사회복지문제를 소재로 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 및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신의 인격완성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사회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다함께 운택한 생활을 조성해 나가는 능력,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을 체득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류상렬, 2004).

이러한 복지교육은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이념, 사회연대정신,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고,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전문적 역량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복지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와 같이 인간성이 풍부한 아동·청소년을 길러내는데 있다. 류상렬(2004)은 복지교육의 목표로 ① 생명의 중요함을 알게 하는 동시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② 사회연대의식을 높이고 복지의 마음을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 가는 태도를 가지며, ③ 일상생활 중에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④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복지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아동 및 청소년발달의 왜곡과 사회 체험, 지역의 연대력 상실과 정치적 무관심, 사회보장을 들고 있다.

IV. 지역복지의 내용

지역복지는 개념 규정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조직화활동, 예방적 복지증진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지교육과 관련된 예방적 복지증진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방적 복지증진 서비스는 주민이 클라이언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으로 생활 관련 시책과의 연결, 복지교육·계발활동, 종합상담·정보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 관련 시책과의 연결은 주민의 생활문제는 복지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이들 제 영역의 시책과 복지 영역을 연결시켜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복지교육·계발활동은 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종합상담·정보제공은 다양한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체제의 마련과 이에 적절한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박태영 2003). 본 주제에서는 지역사회교육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의식 고양과 주민참가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가족 복지와 아동·청소년복지를 다루고자 한다.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을 보호·보장·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족은 우리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현대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은 한 개인의 생활주기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육과 복지의 관계는 시대·사회적 상황에 적절하도록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미래 가족의 형태나 구조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핵심적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가족은 한 집합체로서의 안정성, 애정, 유대감과 가족성원의 성장·발달을 모색하면서 고유의 방식으로 최선의 가족생활을 실현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및 불안정한 사회변화 속에서, 또 가족 관계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취약가족이 발생하게 되고 해체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좁게는 가족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넓게는 국가적 복지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평생교육의 기능이 가족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의 질은 많은 경우에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가족가치를 강조하고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족교육프로그램이 가족문제교육의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족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부부문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부관계는 가족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계와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에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변화하는 가족구조 속에서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자녀관계의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신용주·김혜수, 2002). 한부모가족과 재혼 가족의 증가 및 자녀의 출산 감소화 추세 등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시대상황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관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친밀감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하고 신뢰에 찬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여 가족교육으로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핵가족화에서 시작된 가족문제는 오늘날 가정해체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은 사회유지와 발전의 기초로서 상부상조하는 복지적 기능을 가지고

이지만 해체된 가정에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생태계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즉 지역사회 단위에서 새로운 정보를 투입하고 좀 더 전문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족체계로 바뀌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 부분이다. 이들은 동일한 연령층을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동복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가 대상이 되며, 청소년복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까지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

아동복지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복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부터 고등학교 이후 대학 시기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24세까지의 성인을 다룬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 및 육성에 폭넓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학교사회복지는 교육현장이라는 2차적 영역에서 교육목적의 달성을 지원한다는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교사 등 타 전문직들과 팀 접근을 하는 사회복지 내의 특별한 전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지난 1세기에 걸쳐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법적 지위의 향상 및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나타났다. 과거 아동·청소년은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물로 인식되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은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되었다. 이에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청소년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성장기간 동안 생활이 보장되었으나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나 가족이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부모 가정 또는 재결합가정이 늘어나며, 취업모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을 유기하기까지도 한다. 현대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책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유로 아동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부모와 가족을 도와서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의의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고려하면 수적으로도 미래의 인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않다. 특히 빈곤으로 인해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다(공계순 2004).

V.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본 주제인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사회교육의 현실과 과제,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이제 지역사회교육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좋은 가정·좋은 학교·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운동과,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확대, 지역주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

박차상(2004)은 지역사회교육이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복지서비스는 속성상 특수보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계법들은 특별한 수요상황으로 인해 인격존중이 위협받는 집단, 즉 연령, 신체 및 정신적인 상황을 원인으로 활동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집단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수보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기회균등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이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 복지의 부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은 복지의 속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는 교육의 상위개념이며, 교육을 통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며, 논리적으로는 교육의 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영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지역사회학교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형성된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연계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주제에서는 Popple(1996)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지역사회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참고로 하여 복지차원의 지역사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플(1996)은 영국의 경험을 ‘보호(care)’와 ‘행동(action)’의 연속선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을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사회/지역계획,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행동, 여권주의적 지역사회 사업,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과 같이 8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기법이나 기술 측면에서 중복될 수 있으며, 상이한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오성수·류진석 2004). 본 주제에서는 포플이 분류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지역사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유형이다. 지역사회보호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복지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자조개념을 개발하는 데 집중시키고 있다.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주민이 자원 봉사활동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유형이다. 지역사회조직은 타 복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상호협력 및 조정은 중복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원의 부재현상을 극복하여 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비스중심의 지역사회조직모델은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관리 및 정부의 재정보조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조직가·촉매자·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세째, 지역사회 교육(community education) 유형이다. 지역사회교육모델은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로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시도로서, 비판적 사고와 담론을 통해 억압적 조건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양식을 고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구성원이 경험, 문화, 가치 등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포퓰의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살리는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지역은 제주지역만이 전통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음악과 민속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주민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삼무정신이나 조낭정신과 같은 집단적 의식을 교육하는 일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전설, 향촌사, 전통생활양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제주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평생교육의 분야를 확대 실시한다. 이미 실시해오고 있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의 교양강좌,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외국어, 건강, 취미활동 외에 고령자 증가에 따른 노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아동 및 청소년발달의 왜곡과 사회체험, 지역의 연대력 상실 등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이미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호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지역과의 결연을 통해 상호방문 교류, 인터넷 국제사랑방 운영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한다. 지역주민은 교육을 통해서도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만으로는 자신의 심리적 또는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주민의 회생 및 심리사회적 손상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 및 임상치료와 같은 미시적인 개입(micro-oriented intervention)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주민의 삶과 생활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연결, 관리는 물론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환경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건강하도록 도울 수 있다.

Ⅵ. 마무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지역사회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주지역사회는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자유도시(Jeju Free International City)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웰빙, 즉 자신은 물론 이웃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보고 진정한 행복을 함께 찾고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운동과 생활양식이다. 복지란 외형이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 내면세계가 너그러워져야 하고 행동자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전개할 때, 우리가 속해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건강할 때 가능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영·유아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하는 건강, 의료 등의 복지지원과 경제적 지원 및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교육은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이념, 사회연대정신,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계순 외(2004). 아동복지론, 학지사
- 김민호(2003). 지역사회 변화와 평생교육-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제10회 지역사회교육 심포지엄
- 류상열(2004). 지역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박차상(2004). 가족복지와 지역사회교육,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제11회 지역사회교육 심포지엄,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박태영(2003).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 성민선외(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오정수 · 류진석(2004). 지역사회 복지론, 학지사
- 윤철수(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현황과 전망, 「지방화와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이희수(2002).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논리와 과제,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제20회 평생교육 심포지움
- 정규호(2004). 수미산정-웰빙 열풍, 빛과 그림자, 불교신문(2004.9.17)
- 조홍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 황호진(2002). 지역사회재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비전과 과제,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방향, 제20회 평생교육 심포지움

<Abstract>

How to Implement Community Citizens' Education for Its Welfare

Park, Tae-Soo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o educate the community citizens for its welfare. Its members have some relations that are communal - experiences, values, and/or interests may be shared, they ma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re concerned about mutual and collective well-being. Their education has to be directed toward enhancing community welfare, whilst strengthening their consciousness as community members.

Currently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elop new community culture campaign and life style in which we retrospect ourselves, take care of the neighbor, and create the true happiness. Well-being means that our inner selves get to be generous, our external figure to be transformed, and we are able to live harmoniously, which is to be possible when we improve our consciousness by the systematic education in our home, school, and communit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pushing ahead with the finan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infants' and youths' health and medicare of low income family. Furthermore the community has to focus the education on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social well-being ideology, social coalition spirit, and social well-being system. The precise living condition of the people who need well-being service has to be educated. In addition the practical knowledge and technique for their benefits has to be taught.

Therefore the education for the social well-being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followings: the educ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to improve their identity as community members the expan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the sense of global community members. In addition professional counselors and professionals on social welfare have to educate people who need welfare services to enhance their knowledge and skills for community well-being.